

주일 1부 예배

가장 고상한 지식(빌립보서 3:8-12)

빌립보서 3:8-9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 “가장 고상하다” 즉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을 말한다. 사람으로서의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듯이 지식 위에 지식이다. 이것을 사도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묶어 있는 모든 것로부터 해방시킬 줄 믿는다.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약 잡고 행동으로 옮기면 사단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있다. 우리가 언약만 잡고 있어도 사단은 벌벌 떨고 있다.

1. 가장 고상한 지식

▶ 세상에겐 무언가 대담해 보이는 지식이 많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 지식도 있다. 아주 깊은 곳을 설명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다. 왜?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인 것. 하나님을 알면 그런 지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수준 낮은 것이다. 인간의 현실이 뭐냐? 죽으면 지옥가야 하는 문제와, 지금 있는 저주를 해결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철학이 그것을 해결해줄 수 없다. 아무리 오묘한 깊은 불교의 세계를 말하는 스님이 있다고 한들, 그 소리에 절대 따르려면 안 된다.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묘하다 뭐하다 하지만 결국은 귀신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주 오묘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사실상 이 사상은 ‘현실은 현실’이란 말이다. 요가 하는 사람들도 무언가 깊이 들어가곤 하는데 물론 무슨 세계가 있기는 하겠다. 사단도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귀신 아닌가? 그들 또한 깊은 세계를 통해 천국에 갈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된다.

▶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복음 전해보면 알 수 있다. 알아들으면 진짜고 못 알아들으면 가짜이다. 그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 하면 사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다. 예전에는 그게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 속았던 것을 깨달았고 이제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다. 세상 지식은 우리가 그냥 이용할 도구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놀라운 해결책을 줄 수 있

다.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그리스도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지식이고 그 외에 것은 전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란다.

▶ 세상지식은 대중한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뭘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니 배움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다. “그들은 지식이 많고 우리는 응답이 많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끝!! 아닌가? 뭐하려고 고민하고 있는가? 간단히 하고 넘겨 버리고 끝! 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1번, 공부 2번이다!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하니깐.

▶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다. 오히려 내지식이 해가 된다, 정말 거추장스럽고 제발 버려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있는 그것들 때문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알고 난 후 그것들을 정말로 버리고 싶어 했다. 물론 그리스도 누리면 그것들은 새롭게 이용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위에 있을만한 지식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것을 뛰어넘는 그 위의 무엇! 이란 뜻으로 표현했다. 이 말은 결코 세상에서 최고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에겐 비교할 만한 것조차 없다. 그래서 “내가 말 할 수 없는 그 곳을 보고 왔다”고 했다. 지식위에 지식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소망은 이 지식 안에 있다. 그리스도 없으면 인간은 아~ 무 소망이 없다.

2. 이 지식으로 끝내라.

▶ 자꾸 무엇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식으로 이미 끝이 났다! 무한정해야 무엇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은 우리의 종교성에서 나왔다. 이 종교성으로 인해 우리 자꾸 무엇을 하려는 것이다. 언약을 잡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생각 한다. 이것이 우리 체질이다. 계속 뭘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불신앙에서 온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이 역사해서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계속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누리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종교는 안 그렇다. 계속 무엇을 하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 아닌가? 불교는 답을 처음부터 주지 않는다. 줄 수도 없고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해탈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채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뭔가를 계속 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근데 복음은 다르다. 답을 처음부터 준 것이다.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아닌가?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모든 저주에서 일단 해방이다! 그 때부터 기도 응답 된다고 약속도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 천주교도 답이 없다. 죽어봐야 안다는 게 천주교다. 그러니 죽는 순

간이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평소에 절대 구원의 확신 없다. 그 때 가봐야 안다고 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불손하고 무례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전도할 때 만나보았을 것이다. 고난 오면 힘을 다하여 그 고난을 견딘다. 절대 말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견딘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순간 옮겨버렸다! 그리고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 그 것으로 끝이다. 이게 복음이다.

▶ 이 그리스도로 끝내라! 일단 영적으로 끝내야 한다. 다른 것 할 필요 없이 언약잡고 누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끝!! 이걸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겠는가? 결론은 누리면 된다. 근데 누림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정리하라. 그것을 딱 정리하고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새로 한번 정리하라. 마음에 불신앙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부식되어 없어질 때까지 이것이 정말 답 맞냐고 질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표를 주신다. 발견 되었으면 그 때부터는 눈 돌리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방 안에 기만히 앉아 그것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 더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되어 지는만큼 하면서 그리스도 누리면 된다. 그렇게 하다 한 칸 올라서면 거기서 그리스도 누리고 또 올라서면 또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복음 정리하고 답인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을 시작하라.

▶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로 끝내라고 하면 요 19:30(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끝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했던 무작정 “믿습시다~!”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복음적 방법이 아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게 복음의 방법이고 기다리는 것 또한 복음의 방법이다. 내가 믿어서 끝내려는 게 아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기 바란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날 끝이 온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끝내는 것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 해도 끝이다. 무슨 일이 온다 해도 나오는 더 이상 아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답이 나고 눈 열리는 것이다. 이 이상은 필요 없다. 왜? 답났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여정이 있다. 지금까지는 계속 움직여 가는 여정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인생을 따라 움직이는 여정이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멈춰 서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다.

▶ 우리 목표는 일단 24시다. 늘 승리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때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가 온다.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참 감사하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 여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이 주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2부 예배 (임마누엘 1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창13:14-18)

♣서론

▶몇번 나는 이렇게 살수 없다고 생각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 나 혼자 하나님께 한 기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증인으로는 설수 있다.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저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 중에 오늘 내린 결론이다.

▶세 종류 인생이 있다.

1)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된다. 사탄의 함정, 틀, 울무이다. 거기에 안숙는 아이들을,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나님이 필요없다는 존재들이 있다. 수행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다 틀린 것이다.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누구냐? 어떻게 되는가? 틀린 종교에 잡히게 된다.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사탄이 주인이다. 새로운 나를 찾으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온 답이 혼란이요, 집착이요, 정신분열, 중독이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

2)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믿어도 12가지 속에 있는 사람이다.

3)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네게 능력을 주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1.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회복하라.

▶제가 천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있다.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응답왔다.

이 날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명을 회복시키는 날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성경에는 죽어가는 미래를 살려야 한다고 했지, 미래 걱정할 필요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멸망받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하나님께서 새로 창조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새로 창조된 나이다. 갈대아에서 나오라. 오늘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라. 어떻게 발견합니까? 계속 물어보라. 그러면 나온다.

3.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를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이다. 창13:14,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게 영원히 주리!

♣결론

▶복음과 능력, 매일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이 천명 받는 날로부터 매일같이 역사 일어난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오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2부)

헤롯 성전과 마가다락방 (행2:1-13)

♣서론

▶우리가 성전건축의 축복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왜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는가? 지금 전세계에 영적 문제가 왜 오는가? 아무도 모른다. 모르니까 점점 커지는 것이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치매, 영적문제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지역에 흑암 문화를 막을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

1)제1성전(솔로몬 성전)- 사무엘이 다윗에게 얘기했다. 언약계 모실 성전을 지어라. 부산의 흑암문화를 막을 성전을 지을 기도를 해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래서 다윗이 왕이되어서 성전 준비를 했다.(대상29:10-14)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2)제2성전(스룹바벨 성전)- 무엇을 안했길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려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했기 때문이다. 포로되게 만들었다. 이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제2성전을 지었는데 지은 이가 스룹바벨이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없어지게 되었다.

3)제3성전(헤롯 성전)-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헤롯이 이스라엘을 이용하려고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제3 헤롯 성전이다. 예수님이 가서 채찍질을 하고, 상을 둘러엮은 장소가 헤롯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성전이 이 성전이다.

▶왜 그런가?

1.복음없는 성전

▶우상성전하고 똑같은 복음없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다.

1)우상문화를 막아야 하는데 진 것이다.

2)재앙문화에게 진 것이다.

3)그때마다 포로,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2. 237개 나라

▶237개 나라가 예배해야 할 장소에 염소 장사하고, 동전바꾸고 한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작을 한 것이다. 237개 나라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라.

1)행8:4-8,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2)행8:26-40, 에디오피아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3)롬15:23 스페인도 포함되어 있다.

3.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성전

1)237개 나라 렘넌트들이 올수 있는 성전

2)전세계 렘넌트들이 남은 자로

3)흩어진 자로 기다리고 있다.

♣결론

▶행1:14,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행2:9-11, 237개 나라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 행2:45-47,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기도할수 있도록 만들라.

1)나의 기도실을 내가 만든다.

2)나의 렘넌트실은 내가 만든다.

3)나의 선교룸은 내가 만든다.